

사립대 절반 “2학기 수업, 온·오프 병행 ‘브렌디드 러닝’”

거리두기 격상에 수업계획 차질
85개 대학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
전체 11.8% 대학, 전면 비대면수업

국내 4년제 사립대 10곳 중 1곳은 2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절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브렌디드 러닝’ 방식을 계획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4년제 국내 사립대학 153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2학기 개강 및 강의유형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2일 사총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85개 대학이 2학기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153개 사립대학의 55.6%를 차지한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숙명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대부분이 이 방식을 결정했다.

비대면 수업으로만 한 학기를 보내기로 한 대학은 18개교로 전체 대학의 11.8%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전체 대면 수업 계획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은 42교로 전체 사립대의 27.5%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10곳 중 1곳은 2학기 수업 방식을 개강일이 임박



주요 대학들이 비대면 2학기 개강을 한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할 때까지 정하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곳은 단 한 곳이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대학은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당초 2학기 수업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해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며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 같은달 23일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는 전국이 2.5단계로 묶이면서

대학들의 대면 수업 계획이 틀어졌다.

대부분 대학은 개강과 함께 비대면 수업을 한다. 개강 후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대학이 건국대·순천향대·아주대·한양대·호서대 등 60개교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사립대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경기대·경희대·서울여대·한신대 등 전체 사립대의 15.7%인 24개교가 4~6주 등 1달 이상 온라인 수업을 계획했다.

다음으로는 단국대·한남대 등 “2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이 많다. 총 15개 대학이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다. 대전대 등 10개교(6.5%)는 3주간 비대면수업을 실

시할 계획이다.

성균관대와 한동대, 백석대 등 21개교(13.7%)는 지난달 말까지 비대면수업 기간을 명확히 공표하지는 않았다. 급격히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상황에 맞게 유동적 판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의 2학기 학사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한 형태인 브렌디드 수업은 20~25명 이하, 30명 이하, 31~60명 이하 등 강의실 크기와 수업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의실 대비(밀집도) 50% 이하 등 대학별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강인원을 2개 조로 나눠 1조가 대면 수업 시 2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격주로 번갈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대학도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학교별로 20명 이하, 25명 명, 30명 이하 등으로 학교의 지침에 따라 개별 교과목 교수와 학생이 상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대면수업 시 강의실의 적정한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수시 환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균관대는 지난 1일부터 학생성공 포트폴리오 시스템 ‘챌린지스퀘어’를 운영한다. /성균관대

성균관대 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성균관대가 학생 비교과활동 학습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학생성공 포트폴리오 시스템 ‘챌린지스퀘어’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챌린지스퀘어는 학생 대학생활 전주기에 걸친 교내외 학습성과를 통합·관리하는 종합 전산 지원시스템으로, 동아리활동·봉사활동·장학활동·국제교류·멘토링·공모전·세미나 등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성균관대는 챌린지스퀘어를 활용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바쿠공대와 교육협력 협약

인하대는 지난달 28일 아제르바이잔 바쿠공과대학교와 ‘3+1 국제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장학생 100명을 바쿠공과대와 인하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인프라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 등 4개 학과에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교육하는 것이다.

/인하대

한신대,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

한신대 창업지원단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확산을 위해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키움 사회적협동조합’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신대는 양 기관과 함께 ▲사회적경제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상호 교류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각기관 지원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 기술지원과 컨설팅 제공, 조사연구와 사업모델의 개발·전파 등에 힘을 계획이다.



한신대 전경 /한신대

조창석 창업지원단장은 “한신대 창업지원단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경제에 특기가 있는 각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대학기관평가인증 ‘All Pass’

대학이념·경영 등 5개 평가영역 충족

순천향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인증 자격모니터링 평가에서 ‘인증자격 유지’ 결과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대학이념 및 경영 등 5개 평가영역을 충족(All Pass)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자격이 유지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인증자격모니터링은 대학이 지속해 인증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평가제도다. 재정 및 학생총원 관련 핵심지표인 6개 필수평가준거와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30개 평가 준거를 모두 충



순천향대 전경

족해야 인증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서교일 총장은 “지난 2017년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뒤 최근에 시행한 인증자격 모니터링에서도 인증자격 유지를 획득하게 됐다”라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충할 수 있는 요건 충족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美 조지아텍 임성규 교수 특강

‘파이썬 이용한 기계학습’ 강좌 진행

호서대는 여름 물입학기에 미국 조지아텍 인공지능(AI)전문가인 임성규 교수가 ‘파이썬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텍(Georgia Tech)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 중심 대학이다. 임성규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호서대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정규수업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을 2~3주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물입학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 강좌는 LINC+사업단 후원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운영됐다. 인공지능을 포함해 ▲파이썬 ▲마이크로컨트롤러 ▲무선통신시스템 교육이 과정보로 4~5일 단위로 진행됐으며 총 12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걷기의 모빌리티인문학 공유

건국대 HK+ 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는 2020 모빌리티 인문페어 ‘걷기의 모빌리티인문학’ 영상을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부터 개최된 모빌리티 인문페어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걷기의 모빌리티인문학’은 총 5차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번 ‘걷기의 모빌리티인문학’은 사람과 이동성이 만들어낸 여러 장소를 둘러봄으로써 역사, 문화, 삶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현진 기자



SCU Family Summer Festival /서울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2020 SFSSF’ 행사 성료

서울사이버대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한 온라인 ‘2020 SCU Family Summer Festival’ (이하 2020 SFSSF)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2020 SFSSF는 개그맨 이동엽의 사회로, 국민송으로 불리우는 서울사이버대 로고송을 응용한 플래시몹과 랜선 토크, 총동문회 소개, 재학생 가요제 TOP7의 결선과 문자투표 진행, 가수 요요미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현진 기자